

지원동기가 의과대학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실

김지영 · 손희정 · 김태진 · 최윤호 · 김호중 · 기창원 · 김주희 · 홍경표

= Abstract =

The Impact of Application Motives on Medical School Adjustment

Ji Young Kim, PhD, Hee Jung Son, MD, Tae Jin Kim, MD, Yoon Ho Choi, MD, Ho Joong Kim, MD, Chang Won Kee, MD, Ju Hui Kim, MA, Kyung Pyo Hong, MD.

Office of Medical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aimed to identify application motives and to explore the impact of motives on school adjustment in medical school students.

Methods: Fifty-one third-year medical students were individually interviewed by two independent interviewers to evaluate application motives and school adjustment. Fisher’s exact test and two-way analysis of variance were used to examine group differences in school adjustment and academic performance according to application motive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Results: On the basis of Marcia’s identity status model, four types of application motives were identified including “objective orientation”, “achievement orientation”, “heteronomy” and “objective diffusion.” Students who were classified into either objective orientation or achievement orientation did not have any adjustment problem. However, half the students classified into either heteronomy or objective diffusion had academic or social problems. The students in the first two classifications achieved higher grades in basic science courses than those of the later two.

Conclus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application motives tend to impact school adjustment and academic performance. Motive-based admission policies and student guidance should be considered as alternative measure for improving school adjustment and academic performance in medical school students.

Key Words: Application motive, School adjustment, Identity status

교신저자: 김지영,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실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50번지 삼성서울병원 별관8층 성균관의과대학
Tel: 02)3410-6814, Fax: 02)3410-6820, E-mail: jykimedu@med.skku.ac.kr

서 론

특정 직업이나 전공분야에 대한 선호는 인적자원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의과대학 지원동기에 대한 여러 연구들은 주로 시대에 따라 의과대학 지원동기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며 변화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의과대학 지원동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효시로는, 이근태 등 (1985)이 1983년 전국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연구를 들 수 있다. 이후, 특정 지역 (강복수 등, 1994)이나 특정 대학 (유희정 등, 1998)의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가 주로 수행되었으며, 1997년에는 다시 전국 규모의 조사연구 (박정한 등, 1999)가 수행되었다. 최근에는 졸업 후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로 의과대학 지원동기를 조사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권성준, 2001; 김형준 등, 2003).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의과대학 지원동기를 인술, 사회적 지위, 수입 등 몇 가지 항목으로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가장 주요한 동기를 선택하게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들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시대가 지날수록 본인의 의지로 의과대학을 선택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이와 함께 경제적 요인에 의해 의대를 선택하는 비율 또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박정한 등, 1999).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우리나라 의과대학생들의 지원동기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 수 있는 전국 규모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불황과 청년실업의 증가현상을 고려해볼 때, 수입이나 사회적인 안정을 위해 진학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렇듯 많은 연구자들이 의과대학생들의 지원동기에 관심을 기울여 온 것은, 지원동기가 의과대학에서의 적응은 물론 졸업 이후 의사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데도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 가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원동기의 양상이나 지원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 비해, 지원

동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여기에는 지원동기의 영향에 대한 추적 연구가 힘들다는 점과 함께, 지원동기를 심리적인 구인 (construct)으로 체계화하여 다른 변인들과의 인과모델의 구축이 가능하게 해 주는 이론적 틀이 없다는 점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학생들이 표현하는 다양한 지원동기를 핵심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동기를 분석을 위한 변인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지원동기를 Marcia의 자아정체감 수준 이론에 근거하여 유형화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자아정체감이란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심리적인 상태이다 (박아침, 1984). 자아정체감의 개념을 처음으로 주창한 Erikson (1963)은 자아정체감을 ‘자신의 자아가 연속성과 동일성을 갖는 것으로 경험하고, 또한 그렇게 행동하도록 하는 능력’이라고 규정하였다.

자아정체감은 진로의식이나 진로태도를 포함하는 진로발달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는데 (유가호, 1996; 김희진, 2001; 허혜경, 2002; 이기학, 2003), 이는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규정하는 전공이나 직업의 선택을 통해, ‘자신이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자아정체감의 양상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Erikson의 자아정체감 개념을 발전시켜 자아정체감수준 이론을 주창한 Marcia (1966, 1980)는, 청년들이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하여 겪는 위기(crisis)와 관여 (commitment)의 정도와 양상에 따라 자아정체감을 네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이 네 수준은 성취 (achievement), 유예 (moratorium), 폐쇄 (fore-closure), 혼돈 (diffusion)이다 (김정희 등, 2001). ‘성취’는 진지한 탐색과정을 거쳐 자아정체감을 결정한 수준이며, ‘유예’는 아직 탐색과정에 있으며 자아정체감을 결정하지는 않은 수준이다. ‘폐쇄’는 탐색과정도 없이 결정을 내린 상태를 말하는데, 부모나 사회의 가치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경우가 이에 속한다. ‘혼돈’은 자아정체감을 아직 결정하지도 않았고, 결정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자아정체감 수준의 확인을 위해 Marcia가 사용한 방법은 15분에서 30분이 소요되는 반구조화된 (semi-structured) 면접이었다. 이후 연구의 편의를 위해, 설문지 형태의 자아정체감수준 검사지들이 제작되어 활용되어왔으나 (Adams & Fitch, 1983; Melgosa, 1987), 면접은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한 청년들의 내면적 노력과 현재의 자아정체감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 수준을 반영하는 지원동기 유형과 학교생활 적응도와의 관계를 통해 지원동기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적응 (adjustment)이란 라틴어로 「방향」을 나타내는 「ad」와 「올바른」이란 뜻의 「juste」의 합성어로 「올바른 방향」을 의미한다 (정영홍, 1984). 적응은 순응 (conformity)과는 다른 개념인데, 순응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주변 환경에 자기를 단순히 맞추어나가는 것이라면, 적응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에 기초하여 환경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한덕웅 등, 1991). 대학생생활적응도의 측정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적응의 영역을 학업적응과 사회적 적응으로 구분해 왔다 (Baker & Siryk, 1984).

이러한 적응의 개념에서 보면, 의과대학 적응이란 자신의 욕구 (need)와 지향성 (orientation)에 기초하여, 학업과 사회적 관계 등 의과대학 생활을 통해 주어지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학업성취도를 비롯한 의과대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성차를 제외하면 출신지역이나 고등학교 계열 등의 개인배경변인이 미치는 일관된 영향을 발견하지는 못했으며 (유승훈 등, 1994; 김하원 등, 2002), 성격 (김신, 1999)이나 진학동기 (James & Chilvers, 2001) 같은 내면적인 요인의 영향력에 대한 심화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구조화된 면접에 의해 확인한 의과대학생들의 지원동기를 Marcia의 자아정체감수준 이론에 근거하여 분류하고, 이렇게 분류된 지원동기의

유형이 의과대학에서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원동기에 따른 학생들의 적응행동의 양상을 밝혀냄으로써, 성공적으로 적응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선발하고 선발된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가.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2004년에 성균관의대 3학년 (본과 1학년에 해당)에 진입한 학생 51명이었다. 49명은 2002년 입학생들이었고, 2명은 휴학경험이 있는 2001학년도 입학생들이었다. 여학생의 비율은 31.4%였고, 고등학교 인문계열 출신이 45.1%였다. 과학경시대회 및 올림피아드 입상자만을 대상으로 한 수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비율은 11.8%였다 (Table 1).

나. 조사방법

2004년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3주에 걸쳐, 51명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연구자 2인이 학생을 분담하여, 연구자와 학생이 일대일로 대화하면서 축어록을 작성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면접은 사전에 제작된 면접지를 활용하여 이루어졌고, 개인배경변인과 지원동기,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학생이 지각한 학업 및 생활상의 어려움, 남은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와 걱정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다. 분석방법

학생들의 지원동기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분석되었다.

먼저 의과대학을 오기로 결심하게 된 시기는 언제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다. 학생의 응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한 보조질문을 통해 가장 중요한 지원동기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였다. 사용된 보조질문은 「의과대학 진학을 결심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다른 과에 합격했

Table I. Characteristics of the 51 Students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35	68.6
Female	16	31.4
High school major		
Humanities	23	45.1
Natural sciences	28	54.9
Admission method		
1 (only for prize winners of mathematics and science contest)	6	11.8
2 (assessed by SAT scores and high school grades)	45	88.2

을 경우 진학할 생각이 있었는지’, ‘의과대학 진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인지’ 등이었다. 보조질문은 가장 핵심적인 지원동기를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축어록에 기록된 학생의 응답을 읽으면서 핵심적인 지원동기라고 생각되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후, 유사한 반응끼리 군집을 만들었다. 요약된 문장을 되풀이해서 읽으면서, 내용상 통합이 가능한 군집을 합쳐나갔다. 이러한 과정을 군집들을 더 이상 통합할 수 없을 때까지 반복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설정된 군집에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을 부여하였는데, 기술상의 편의를 위해 두 단어 이하로 명명하였다.

학교적응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에 기초하여 환경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 (정영홍, 1984; 한덕웅 등, 1991)’는 적응의 정의에 기초하여 분류되었다. 이러한 정의는, 단순히 학교 생활에서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학교에서 무뎠히게 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위해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자세를 포함한 적극적인 의미이다.

적응도 분석 또한 지원동기 분석에서처럼, 지난 2년간 학교생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질문한 후, 학생의 응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적절한 보조 질문을 통해 적응도를 확인하였다. 적응도 분석과 지원동기 분석에서 차이가 나는 점은, 적응도 분석

에서는 유사한 반응의 군집을 만드는 과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적응도 분석에서는 적응의 정의에 기초하여 적응도 수준의 분류 준거가 미리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학업성취도 평정을 위해서는 직전학년인 2학년 (예과 2학년에 해당)에 이수한 기초의학 통합과목인 ‘생명과학입문1’, ‘생명과학입문2’, ‘생명과학입문3’, ‘생명과학입문4’의 평점의 평균을 활용하였다. 전통적인 의학분야 학습에 대한 적응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교양과목과 인문사회의학계열 교과목의 성적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본크기가 작고 분할표 상의 칸도수가 0이거나 기대도수가 5보다 작은 칸이 많았기 때문에, 지원동기 유형에 따른 적응도 수준의 차이 등 범주형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는 Fisher의 정확검정 (Fisher’s Exact Test)을 실시하였다. 지원동기와 학생특성이 생명과학입문 과목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원분산분석 (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통계적인 분석은 SPSS 11.0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결 과

가. 지원동기 분석

축어록 분석과정을 통해, 우발적 (偶發的) 선택, 사회적 안정, 도전의식, 가족의 강권 (強勸), 소명의

식, 모델링, 학문탐구 등 7가지 지원동기가 확인되었다. 각각의 정의와 전형적인 반응은 다음과 같다.

1) 우발적 선택

자신도 지원동기라고 내세울만한 특별한 사유 없이 ‘우연히’ 의대를 선택한 경우이다. 대개 수시합격이나 수능시험성적 같은 입학전형과 관련된 이유 때문에 의대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전형적인 반응은 ‘수시모집에 합격했는데, 수학능력시험을 다시 보기 싫었기 때문에’ 또는 ‘점수에 맞는 대학에 여기 저기 지원했는데 의대만 합격해서’ 등이다.

2) 사회적 안정

적성이나 희망보다는 의사가 사회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대를 선택한 경우이다. 의과대학을 의사라는 직업을 얻기 위해 참고 견뎌야 하는 과정으로 생각한다. 전형적인 반응은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싶어서’ 또는 ‘보장된 미래가 있기 때문에’ 등이다.

3) 도전의식

의사를 천직으로 생각하거나 의사나 의학자와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대에서 겪게 되

는 도전 자체를 즐기고 졸업 이후의 삶에 대한 기대를 표명한다. 의과대학을 자신의 자아상을 완성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전형적인 반응은 ‘의대에서 내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어서’ 또는 ‘열심히 공부해보고 싶어서’ 등이다.

4) 가족의 강권

가족 등 주변의 강력한 권유에 의해서 의대에 진학하게 된 경우이다. 본인의 생각대로 했다면 의대를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전형적인 반응은 ‘부모님께서 강력하게 원하셔서’ 또는 ‘주변에서 모두 의사가 되라고 해서’ 등이다.

5) 소명의식

의사로서 ‘부름 (calling)’을 받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 의대생활을 이를 성취하는 과정으로 인식한다. 전형적인 반응은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또는 ‘병든 사람을 치료해주고 싶어서’ 등이다.

6) 모델링

삶의 지표가 되는 의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대개 어린 시절에 본 ‘좋은 의사’의 모습에 강하게 동일시하고 있으며, 의과대학 생활을 이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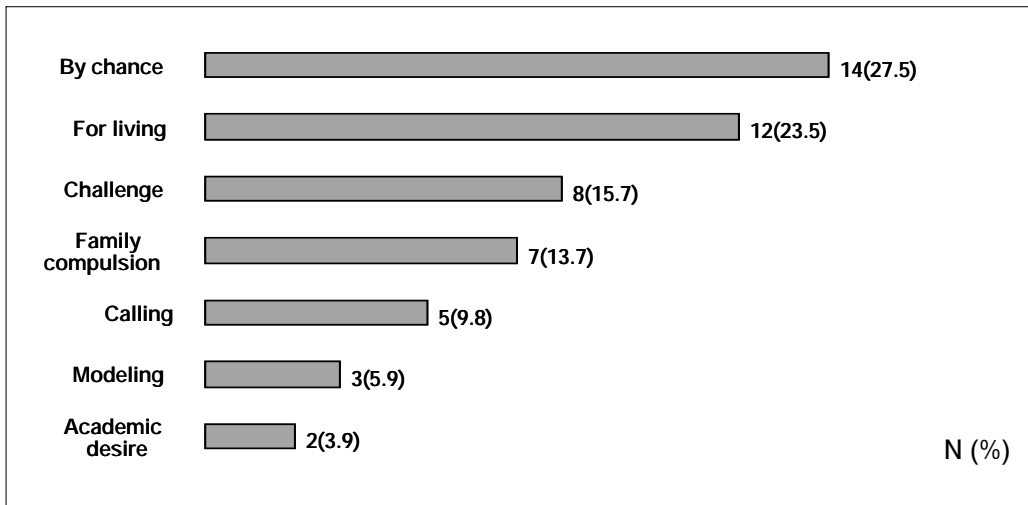


Fig. 1. Frequencies of application motives

Table II. Classification of Application Motive Types in Marcia's Identity Status Model

Decision (Commitment to one's roles)	Orientation (Exploring one's roles)	
	Yes	No
Yes	Objective orientation (Identity achievement) Calling, Modeling, Academic desire	Heteronomy (Identity foreclosure) Family compulsion
No	Achievement orientation (Identity moratorium) Challenge	Objective diffusion (Identity diffusion) By chance, For living

습을 닦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전형적인 반응은 ‘그 때 그 의사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서’ 또는 ‘나도 그런 의사가 되고 싶어서’ 등이다.

7) 학문탐구

의대를 직업교육을 받는 곳이라기보다는 의학분야를 공부하는 장으로 인식한다. 의학 연구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앞으로의 학습과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전형적인 반응은 ‘의학 공부가 흥미가 있을 것 같아서’ 또는 ‘인체에 대해 공부해 보고 싶어서’ 등이다.

지원동기의 분포를 살펴보면, ‘우발적 선택(27.5%)’과 ‘사회적 안정 (23.5%)’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도전의식 (15.7%)’과 ‘가족의 강권 (13.7%)’이었으며, ‘소명의식 (9.8%)’과 ‘모델링 (5.9%)’, ‘학문탐구 (3.9%)’가 가장 적었다 (Fig. 1).

나. 지원동기 유형 분류

이 일곱 가지 지원동기를 Marcia (1966, 1980)의 자아정체감수준이론에 근거하여,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Table II). 지금까지 Marcia의 이론에 기초한 면접지나 질문지는 대개 일반적인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대학생 시기의 주요한 발달과업인 직업탐색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미국적 상황을 반영하는 가치관과 종교적 신념과 관련된 내용이 포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다른 문화권이나 다른 집단에 적용하는 것이 적

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김정규, 1983; 박아청, 1994).

전문직교육에 이미 들어선 의과대학생의 경우, 직업탐색과 관련된 위기와 관여의 양상이 일반적인 대학생들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은 자아정체감수준 자체의 분류가 아니라 의과대학 지원동기를 분류하고 그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Marica식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지는 않고, 지원동기 유형의 분석을 위해서만 Marcia의 자아정체감수준 분류체계를 원용하였다.

목표지향형 (objective orientation)은 진지한 탐색 끝에 자신의 역할을 의사나 의학자로 규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과대학을 선택한 유형으로 ‘자아정체감 성취’에 해당한다. 성취지향형 (achievement orientation)은 아직 의사나 의학자 등 특정한 역할로 자신의 자아정체감을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의대생활을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로 받아들이고, 유예 기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는 유형으로 ‘자아정체감 유예’에 해당한다.

타율형 (heteronomy)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위 사람, 대개 부모의 압력에 의해 의대에 진학한 경우로 ‘자아정체감 폐쇄’에 해당한다. 목표혼란형 (objective diffusion)은 의사나 의학자로 자신의 자아정체감을 규정하지도 않았고, 의대생활을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장으로 받아들이지도 않는 유형으로 ‘자아정체감 혼돈’에 해당한다.

Table III. Application Motive Types by Students' Characteristics

N (%)

	Gender		High school major		Admission method		Total
	Male	Female	Humanities	Natural sciences	1	2	
Objective orientation	4(11.4)	6(37.5)	3(13.0)	7(25.0)	2(33.3)	8(17.8)	10(19.6)
Achievement orientation	4(11.4)	4(25.0)	6(26.1)	2(7.1)	0(0.0)	8(17.8)	8(15.7)
Heteronomy	5(14.3)	2(12.5)	3(13.0)	4(14.3)	1(16.7)	6(13.3)	7(13.7)
Objective diffusion	22(62.9)	4(25.0)	11(47.8)	15(53.6)	3(50.0)	23(51.1)	26(51.0)
<i>p</i> -value*	<.05		.290		.696		

* Fisher's Exact Test (exact inference for small samples)

학생특성에 의한 지원동기 유형의 차이에 대한 Fisher의 정확검정을 실시한 결과, 성차만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고등학교 계열과 입학전형 형태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III).

다. 적응도 분류

적응도 수준은 적응의 의미에서 도출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준거에 기초하여 분류되었다.

첫 번째 준거는 스스로 지각하는 적응상의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지난 2년간 학교생활을 해 본 소감이 어떤가?'하는 질문에 대해, '잘 지낸 편은 아니죠.' 또는 '뭐하고 살았나 싶어요.' 등 자신이 생각해도 문제가 있다고 표현하는 경우에는 적응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두 번째 준거는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학교생활하면서 특별히 힘들거나 어려웠던 점은 없었는가?'하는 질문에 대해, '사실 힘들어요.' 또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우울해요.' 등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표현한 경우에는 심리적인 고통이 있는 것으로 분류했다.

세 번째 준거는 의과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감과 기대를 표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의과대학 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우리학교 학생들은 정말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

고 생각해요.' 또는 '앞으로 경험할 일들을 생각하면 무척 설렙니다.' 등으로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과 미래 생활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만족감과 기대가 있는 것으로 분류했다.

이러한 세 가지 준거에 따라, 적응도 수준을 '성공적 적응', '문제없음', '약간 문제 있음', '문제 심각' 등 네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성공적 적응 (successful adjustment)'은 적응상의 문제와 심리적인 고통은 없고 만족감과 기대는 있는 상태이다. '문제없음 (no problem)'은 적응상의 문제와 심리적인 고통은 없으나 만족감과 기대 또한 없는 상태이다. '약간 문제 있음 (moderate problem)'은 적응상의 문제는 있으나 이로 인한 심리적인 고통은 없고, 만족감과 기대도 없는 상태이다. '문제 심각 (serious problem)'은 적응상의 문제와 이로 인한 심리적인 고통이 있으며, 만족감이나 기대는 없는 상태이다.

적응상의 문제가 있다고 분류된 경우 ('약간 문제 있음', '문제 심각')에는 추가질문을 통해 적응문제의 유형을 학업 부적응과 사회적 부적응으로 나누었다. 학업 부적응은 학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며, 의대공부가 자신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상태이다. 학습시간을 고통스럽게 느끼며, 학업에서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한다. 사회적 부적응은 대인관계를 포함한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이로 인해 고통을 겪는 경우이다. 의

Table IV. School Adjustment Levels by Students' Characteristics

	Gender		High school major		Admission method		Total
	Male	Female	Humanities	Natural sciences	1	2	
Successful adjustment	6(17.1)	6(37.5)	7(30.4)	5(17.9)	1(16.7)	11(24.4)	12(23.5)
No problem	13(37.1)	9(56.3)	6(26.1)	16(57.1)	2(33.3)	20(44.4)	22(43.1)
Moderate problem	10(28.6)	1(6.3)	7(30.4)	4(14.3)	1(16.7)	10(22.2)	11(21.6)
Serious problem	6(17.1)	0(0.0)	3(13.0)	3(10.7)	2(33.3)	4(8.9)	6(11.8)
<i>p</i> -value*	<.05		.153		.404		

* Fisher's Exact Test (exact inference for small samples)

Table V. School Adjustment Levels by Application Motive Types

	Successful adjustment	No problem	Moderate problems	Serious problems
Objective orientation	7(70.0)	3(30.0)	0(0.0)	0(0.0)
Achievement orientation	4(50.0)	4(50.0)	0(0.0)	0(0.0)
Heteronomy	0(0.0)	3(42.9)	3(42.9)	1(14.3)
Objective diffusion	1(3.8)	12(46.2)	8(30.8)	5(19.2)
<i>p</i> -value*	<.001			

* Fisher's Exact Test (exact inference for small samples)

과대학 내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나 불신을 표현하거나, 그들도 자신을 싫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학업 부적응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학생특성에 의한 적응도 수준의 차이에 대한 Fisher의 정확검정을 실시한 결과, 성차만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고등학교 계열과 입학전형 형태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IV).

라. 지원동기와 적응도의 관계

지원동기와 적응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지원 동기 유형에 따른 학교적응도의 차이에 대한 Fisher의 정확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목표지향형과 성취지향형에서는 적응상의 문제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나, 목표혼란형과 타율형

에서는 50% 가량이 적응상의 문제를 나타냈다 (Table V).

지원동기 유형에 따른 적응문제 유형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타율형에서는 문제가 나타난 4명의 학생 중 3명이 학업부적응을 나타냈고, 목표혼란형에서는 문제가 나타난 13명의 학생 중 8명이 학업부적응을 나타냈다 (Fig. 2).

마. 지원동기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지원동기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지원동기 유형에 따라 직전학년에 이수한 생명과학입문 과목 성적의 평균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생명과학입문 과목 성적의 평균의 순위는 목표지향형, 성취지향형, 타율형, 목표혼란형 순으로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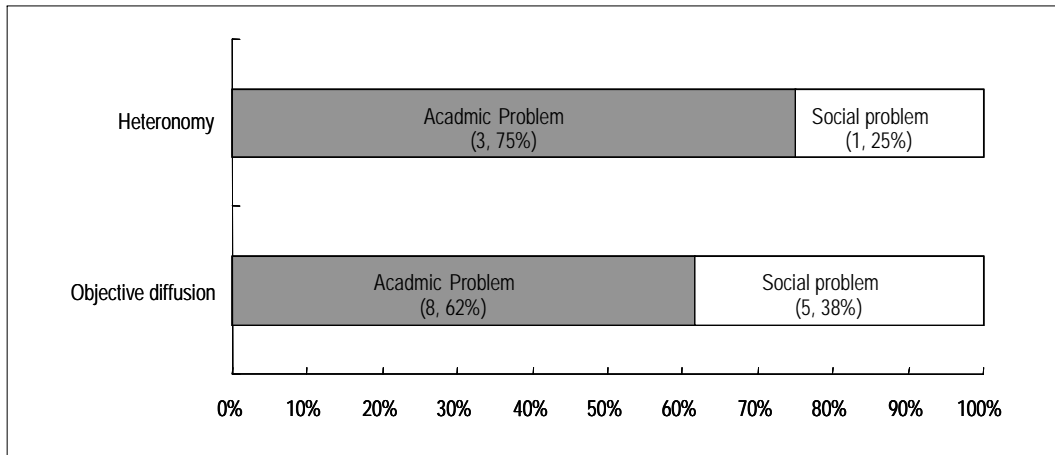


Fig. 2. Adjustment problem types by application motive typ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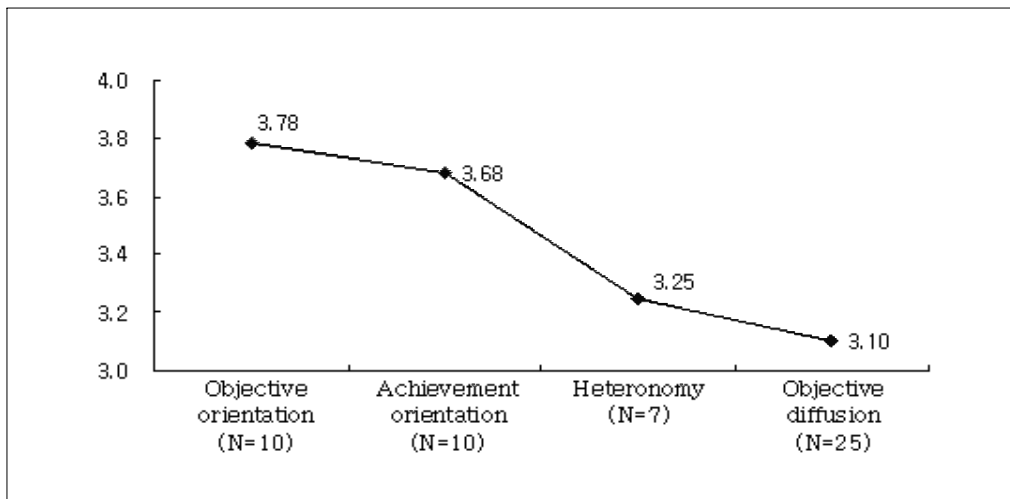


Fig. 3. Grade point averages of basic science courses by application motive types

났는데, 목표지향형과 성취지향형에서 유사한 평균 점수가 나타났고, 타율형과 목표혼란형에서 유사한 평균점수가 나타났다 (Fig. 3).

지원동기 유형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성별과 지향성 유무에 의한 생명과학 입문 과목 성적의 평점평균의 차이에 대한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원분산분석을 위해 성별과 지향성 유무를 변인으로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은 여러 선행연구들 (유승훈 등, 1994: 김하원 등, 2002)을 통해 의과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진 변인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성별에 따라 지원 동기 유형의 분포가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성차를 통제한 상태에서 지원동기 유형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성별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둘째, 지원동기 유형별 사례수가 목표지향, 성취지향, 타율형 등 세 유형에서 10이하로 매우 작았기

때문에 네 가지 유형을 사용한 분산분석에는 무리가 있었다. 또한 적응도 수준과 평점평균의 경향 등에 대한 선행분석을 통해서도 목표지향형과 성취지향성의 유사성과 타율형과 목표혼란형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원분산분석에서는 목표지향형과 성취지향형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하고, 타율형과 목표혼란형을 다른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하였다. 재조정된 두 가지 유형은 의과대학 생활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바, 즉 지향성의 유무에 근거해 ‘지향성 있음’과 ‘지향성 없음’으로 명명하였다.

결과, 지향성에 의한 차이만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F=7.425, p<.01$), 성별의 주효과 ($F=1.791, p=.187$)나 성별과 지향성의 상호작용 효과 ($F=.867, p=.357$)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지향성에 의한 차이를 고려할 경우, 성별에 의한 학업성취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고 찰

본 연구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지원동기를 확인하고, 지원동기가 학업성취도를 포함한 의과대학 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측어록 분석을 통해 확인된 7가지 지원동기는 Marcia의 자아정체감 수준이론에 근거하여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적응도는 문제의 유무와 심각도에 따라 4가지 수준으로 구분되었고, 적응상의 문제는 학업 부적응과 사회적 부적응으로 분류되었다.

가장 많이 나타난 지원동기 유형은 ‘우발적 선택’과 ‘사회적 안정’ 등 목표혼란형으로 연구대상 학생 51명 중 반수 이상이 여기에 속했다. 타율형과 목표혼란형 학생의 반 수 정도가 적응상의 문제를 나타냈으나, 목표지향형과 성취지향형의 경우에는 적응상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정체감 수준을 반영하는 지원동기의 유형이 의과대학에서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의과대학 입학자의 대부분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들의 대부분이 임상직사의 길로 접어든다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2002). 졸업자의 상

당수가 대학시절 전공과는 아무 관련 없는 직업에 종사하게 되는 많은 다른 전공분야와는 달리 의과대학은 입학하는 바로 그 순간이 의사나 의학자의 길로 입문하는 시점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과대학은 어느 전공분야보다도 선택을 위한 더 진지한 숙고와 탐색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많은 의대생들이 자아정체감, 즉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탐색과 통찰 없이 의과대학을 선택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의과대학에서의 성공적인 적응과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고려하였던 고등학교 계열이나 입학전형 방법들에 의한 의과대학 적응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지원동기 유형에 의한 차이만이 나타났다. 또 기초의학 교육과정에서의 학업성취도 분석에서도 성별에 의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고 지원동기 유형의 영향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지원동기가 성별이나 고등학교 계열, 입학전형 방법 등 표면적인 학생배경변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의과대학 적응여부를 예측해주는 강력한 심리적인 변인임을 시사해준다. 또한 의과대학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데에는 여학생들의 지원동기가 남학생들에 비해 보다 목표지향적이거나 성취지향적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의과대학 교육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의과대학 학생선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의과대학 학생선발 정책은 고등학교 시절의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학생들을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다 보니, 의과대학에서 제공하는 입시정보들은 장학제도나 학교시설, 졸업 후의 진로보장 등 홍보성 내용에 집중되어, 의학분야에 필요한 자질과 의사가 되기 위한 학습 과정에 대한 정보는 얻기 힘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과대학 지원자들이 의과대학 생활과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의사의 피상적인 모습이나 부모를 비롯한 주변의 강요, 또는 입학전형이나 수학능력시험 점수 같은 진로선택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이유에 근거해 의과대학 진학을 결정하게 된다.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진지한 자기탐색을 통해 의학분야에 헌신하기를 결심한 입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성공적인 의학교육을 위한 첫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입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보아야 할 점이 입시제도의 변화가 학생들의 지원동기의 양상에 미치는 영향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제도가 변화함에 따라, 의과대학 입시제도도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교차지원제도와 수시입학전형 등 6년제 의과대학의 틀 안에서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고, 의학전문대학원제도라는 전혀 새로운 의과대학 입시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러한 입시제도의 변화에 의해 의과대학 지원자들의 특성 또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는 의과대학생을 위한 진로교육이 본격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많은 의과대학생들이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이들 중 소수는 졸업 전에 의과대학을 떠나 다른 길을 선택하지만, 많은 경우는 주변의 기대나 새로운 진로개척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의과대학에 남아 방향을 계속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의과대학 생활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명확한 경우, 즉 목표지향형과 성취지향형에서는 자아정체감의 혼란이나 이로 인한 적응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목표지향형과 성취지향형 학생들의 경우, 학습에 대해서도 충분히 동기화되어 있고, 의과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도 강하다. 반면에, 타율형과 목표혼란형 학생들의 경우에는 의과대학 생활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학습동기도 약하고 의과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도 표명하지 않는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자신의 역할을 아직 의사로서 규정하지 않았지만 의과대학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도전과 성취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취지향형 학생들도, 의과대학 입학의 소중한 기회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것이다.

의과대학 졸업 이후의 다양한 진로와 의학공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성취를 보여줌으로써 자아정체감 성취를 도와주는 것은, 의과대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일으키고 학교 부적응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전통적인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통해 만나게 되는 의사들의 모습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면접과정을 통해 다른 의과대학으로 일반화가 가능한 요인을 주로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지원동기 유형과 적응도 수준의 분포를 모든 의과대학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입학생들의 고교시절 학업성취도나 장학제도를 포함한 입시제도, 대학의 위치와 특성에 따라 지원동기의 유형과 적응도 수준의 분포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과대학생들의 지원동기와 학교적응의 양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표집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표집이 확대될 경우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조화된 면접을 사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원동기 유형과 학교적응도 수준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검사도구의 개발 또한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3학년(본과 1학년에 해당)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지원동기가 학업성취도를 비롯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의학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월성과 윤리성을 겸비한 '좋은 의사'의 양성이기 때문에, 지원동기가 의과대학 졸업 이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만 지원동기의 진정한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다 장기적이고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의과대학 지원동기가 졸업 후의 진로선택과 나아가 의사로서의 사회적 역할 수

지원동기가 의과대학 적응에 미치는 영향

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복수, 김석범, 황태운(1994). 대구지역 의예과 학생들의 지망동기에 대한 조사. *한국의학교육*, 6, 9-19.

권성준(2001). *의과대학생의 희망진로실태와 영향요인*. 서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 선(1999). 의과대학생의 성격과 학업만족도 및 학업성취도간의 관련성 연구. *한국의학교육*, 11, 271-284.

김정규(1983). Erikson과 Marcia의 자아발달이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교육논총*, 3, 37-53.

김정희, 남기덕, 박영호, 송명자, 송인섭, 심응철, 윤가현, 윤영화, 이철원, 이현진(2001). *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김하원, 고희선, 이무송, 남주현, 김원동, 이재담(2002). 일개 의과대학에서 입학 시 특성에 따른 의예과 학업성취도에 대한 연구. *한국의학교육*, 14, 257-268.

김형준, 박서진, 김정은, 박은철, 이후연(2003). 의과대학생의 전공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의학교육*, 15, 151-161.

김희진(2001).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이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5, 369-393.

박아청(1984). *아이덴티티의 탐색*. 서울: 정민사.

박아청(1994). Marcia의 아이덴티티 지위면접을 활용한 연구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13, 167-185.

박정환, 김경한, 전혜리, 이주영(1999). 의과대학생의 의학교육 및 의료에 대한 의식 조사: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 *한국의학교육*, 11, 339-363.

유가효(1996). 청년기의 자아정체감발달에 관한 관련연구의 개관. *과학논집*, 22, 63-85.

유승흠, 남정모, 김석일, 오현주(1994). 의과대학생들의 학업성취 관련요인 코호트 연구. *한국의학교육*, 6, 20-28.

유희정, 한오수, 홍창기(1998). 1997년도 한 의과대학 입학지원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태도 및 가치관. *한국의학교육*, 10, 29-41.

이기학(2003). 대학생의 진로선택유형에 따른 진로태도성숙과 진로미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1, 13-21.

이근태, Won G, 오인환(1985). *한국 의대생의 의학 및 직업관 연구*.

정영홍(1984). 적응의 개념과 교육.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연구보*, 20, 147-163.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2002). *의과대학교육현황*. 서울: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한덕웅, 전결구, 이창호(1991). 한국대학의 변화와 대학생의 적응. *성균관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지도연구*, 9, 5-170.

허혜경(2002). *청년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Adams GR, Fitch SA(1983). Psychological environments of university departments: Effect on college student's identity and ego status develop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266-1275.

Baker RW, Siryk B(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9-189.

Erikson EH(1963). *Childhood and society(2nd ed.)* New York: Norton.

James D, Chilvers C(2001). Academic and nonacademic predictors of success on the Nottingham undergraduate medical course 1970-1995. *Medical Education*, 35, 1956-1064.

Marcia JE(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 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156-169.

Marcia JE(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J. Adelson(Ed.), *Handbook of adolescence psychology*. New York: Wiley.

Melgosa J(198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occupational identity scale. *Journal of adolescence*, 10, 385-397.